

시설보호 편모가족의 대처행동과 경제적 복지감

Coping Behavior and Perceived Economic Well-being of the Housing-subsidized Single-mother Family

안동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현은민
강사 최선남

Dept. of Home Management, Andong University
Associate Prof. : Eun Min Hyun
Lecturer : Seon Nam Choi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coping behavior and perceived economic well-being of the housing-subsidized single-mother family.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Single mothers who had higher level of income, education, and self-esteem tended to have better coping behaviors.
2. Internally oriented single mothers had better coping behaviors.
3. Single mothers who had high level of income, job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perceived their income more adequately.
4. Single mothers who were satisfied with job, social support and child relationship reported a high level of economic satisfaction.
5. Single mothers who had high score in coping behavior tended to have a high level of perceived economic well-being.

I. 서론

현대사회에서 편모가족은 40대 남성의 사망률 증가와 이혼율의 증가로 가장 빨리 증가하는 가족형태 중의 하나이다(신화용, 조병은, 1996). 우리 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여성가구의 비율이 15%에 달하고 사별로 인한 편모가족이 1960년에서 1990년 사이에 2.6배정도 증가한 반면 이혼 가구주 수는 동기간동안 5배나 증가하여 편모가족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사별이나 이혼은 개인과 가족에게 지대한 정서적, 경제적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고 재적응의 정도가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요구되는 위기 사건이다(Holms & Rahe, 1967; Harowitz, 1977). 편모가족으로의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는 역할과 자원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 요구되고(Ross & Sawhill, 1975; Brand, Brown, & Fox, 1974)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적절한 대처행동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편모는 가사와 자녀양육 역할 이외에 생계부양자 역할이 기대되고 가족내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적응을 해야하므로 편모의 역할과증과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경제적 문제에 대한 걱정은 편모의 에너지와 통제능력을 약화시키고 대처행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Buhler & Hogan, 1980). 따라서 편모가족으로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직업훈련이나 경력을 향상시키고, 가사 일을 잘 꾸려나가고, 생활수준을 낮추고,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거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의 대처행동은 편모가족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McLanahan과 Booth(1989)는 편모가족(mother-only families)과 양부모가족(two-parent families)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경제적 복지감의 불균형이라고 하였다. Pett와 Vaughan-Cole(1986)도 편모가족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은 거의 없다고 하였고, 미국의 인구조사(1986)에서도 편모가정의 빈곤율이 편부가정이나 정상가정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약 과반수의 편모가정이 절대 빈곤선 밑에서 그들의 수입을 주로 복지수당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arfinkel & McLanhan, 1986).

우리나라의 편모가족도 주로 빈곤(57.5%)과 자녀 교육(35.2%)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현일, 1993).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국가에서 보호 및 지원을 하고 있는 빈곤 편모세대는 1992년 현재 전체 편모세대의 72.6%를 차지하고 있다(김영희·한경혜, 1996). 특히 시설보호 서비스를 받고있

는 편모가족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무주택 저소득 모자세대로서 일정기간 시설에 수용되어 생계를 보호받으며 취업지도 및 알선으로 퇴소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 받고 있으나 일반 모자가정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이다. 시설보호 서비스는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배우자로부터 유기 또는 학대받는 여성, 그리고 윤락여성과 가출여성 등의 요보호 여성을 수용 보호하여 자립 생활을 위한 정신능력의 함양과 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조희선, 1996) 모자가정을 위한 시설보호 서비스에는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 일시보호시설 서비스가 있다. 시설보호 편모가족은 대다수 건강하지 못하면서 파출부, 노동 등 일시적 하위직에 종사하고 있어 경제문제가 심각하나 기초생계비가 지원되므로 자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자녀는 잘 적응하는 편이고 편모도 자녀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족의 지원 없이 본인 노력으로 저축이나 주택자금 대여에 의존하고 있다(조희선, 1996)

결론적으로 편모가족은 절대다수가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고 가족성원의 보호와 정서적 결속을 위한 가정관리상의 문제 특히 어머니가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가사노동의 대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자녀양육 및 교육상의 문제, 사회적 참여기회의 부족, 대인관계의 결여 같은 사회적 고립이나 위축문제를 가지고 있다(신현일, 1993).

편모가족의 특성중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경제적 빈곤이고 경제적 빈곤은 편모가족의 생활전반에 걸쳐 연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Weitzman, 1985) 편모가족의 경제적 복지감의 변화는 편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을 포함한 자원의 변화를 통해 향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McLanahan & Booth, 1989) 또한 생계부양자로서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대처행동이 자원사용을 극대화하여 경제적 복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편모가족의 적응에 기여할 것이다. Andrews & Withey(1976)는 경제적 복지감은 생활의 질을 평

가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며 삶의 조건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Bauer, Danes와 Rettig(1990)도 가족의 경제적 복지감은 전반적인 복지감과 상호의존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편모가족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편모의 적응이나 자녀들의 적응에 관심을 두었고(신화용·조병은, 1996; 정현숙·서동인, 1996; 한경혜 외, 1994),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경제적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나 편모가족의 대처행동과 경제적 복지감에 초점을 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시설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는 편모가족은 일반 편모가족에 비해 자원이 부족하므로 이들의 대처행동 양식과 경제적 복지감을 측정해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편모가족의 경제적 복지감이 어떻게 지각되며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고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경제적 복지는 주관적인 평가를 포함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경제환경만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고 객관적 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개인의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Strumpel, 1973) 가족소득이나 직업과 같은 경제적 자원 뿐 아니라 편모의 사회심리적 환경인 자녀와의 관계와 스트레스 상황에서 중요한 편모의 내적 통제능력과 같은 심리적 자원,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자원과 그리고 대처행동에 의해 경제적 복지감이 차이가 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편모가족의 경제적 복지감 및 관련 요인

복지란 건강하고 안락하며 행복한 상태 혹은 개인의 욕구가 충족된 정도를 의미한다(이승신 외, 1996). 경제적 복지는 개인이나 가족이 경제적 적절감, 안정감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며(Walson & Fitzsimmons, 1993) 객관적 재정상태와 재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만족감등에 의해 측정되어 왔다.

여러 연구에서 경제적 복지는 주관적인 평가를 포함하기 때문에 객관적 변인만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고 주관적인 변인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밝히고 있으며(Yuen, 1976; Ackerman & Paolucci, 1983; Davis & Helmick, 1983; Dilland, 1987) 주관적 변인과 객관적 변인을 함께 평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Winter, Bivens & Morris, 1984).

주관적인 경제적 복지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경제적 복지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Yuen(1976)은 경제적 복지의 하나인 가계소득 적정도를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으며 Williams, Nall, Deck(1984)은 소득적정과 재정문제 곤경도를 Liang과 Fairchild(1979), Diener(1984)는 상대적 박탈감과 재정만족도를 제시했으며 이승신 외(1996)는 자원의 적정성, 안정성, 평등성(경제적 불평등 정도)의 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Campbell, Converse와 Rodgers(1976)에 의하면 만족도는 현재 상태에 대한 개인의 안정되고 일반적인 평가를 포함하기 때문에 주관적 복지개념을 잘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여러 연구에서 만족도를 복지의 유용한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Ling, Kahana & Doherty, 1980; Strumpel, 1973; Fletchher & Lorenz, 198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편모의 경제적 복지감의 구성요소로 소득욕구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소득적정과 주관적 복지개념의 유용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경제적 만족감을 측정하였다.

Rowland, Dodder와 Nickols(1985)는 가족이 어떻게 자원의 적정도를 인식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가족생활교육자뿐 아니라 가족자원에 대한 현실적 목표를 세우려는 관리자에게 중요하다고 하였다. Rowland(1983)는 모자가족의 어머니들이 부부가족의 어머니나 아버지들보다 자원적정도 인지수준이 낮다고 하였고 Gross, Crandall, Knoll(1973)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수요에 관한 연구에서 소득이 수요만큼 증가하지 못할 경우 소득을 부적절하게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Bauer와 Hogan(1987)에 의하면 소득 적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개인이나 가족이 자원관리를 잘하며 소득적정도는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중

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Hodges, Tierney와 Buchsbaum은 소득적정도는 이혼가족의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울과 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경제적 스트레스원은 편모의 정서적 디스트레스의 가장 중요한 근원으로 작용한다(Compas & Williams, 1990; Quinn & Allen, 1989; Richards, 1989).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경제적 스트레스는 복잡적이며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절박한 위기나 부정적 사건보다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빈곤한 편모는 불안과 우울증, 그리고 건강문제의 위험이 높게 나타나며(Belle, 1990; McAdoo, 1986; McGrath, Keita, Strickland, & Russo, 1990) 빈곤의 만성적 긴장과 편모의 부모역할의 과중함은 새 생활에 대한 취약성을 가중시키고(Belle, 1984; Turner & Noh, 1983) 이러한 악순환의 과정에서 편모의 무기력감과 절망감은 일반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Belle, 1990; Richards, 1989).

편부모가 인지한 가족환경과 사회심리적 적응연구에서 신화용·조병은(1996)은 편모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수입이 부족하여 경제적 도움을 원하고 있어 경제적 자원이 편모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편모의 경제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연령과 교육, 소득과 직업으로 나타났다. Amato와 Patridge(1987)와 Duffy(1989)의 연구에서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편부모가 경제적 복지감을 높게 인식했다. Dixon과 Rettig(1994)의 연구에서는 근무 시간과 교육이 가장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고 Mauldin(1991)은 편모의 현재 직업과 직업 훈련, 교육, 그리고 인종이 중요한 변인이라고 밝혔으며 Katz(1991)도 편모의 교육과 수입이 경제적 복지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Bould(1977)에 의하면 자녀양육비나 복지수당과 같은 불안정한 소득원은 통제감을 약화시키는 반면 지속적으로 부양자 역할을 할 만큼 소득원이 안정되어 있으면 통제감이 커지고 통제감은 자신의 정체성, 자존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Gongla와 Thompson(1987), McLanahan와 Booth(1989)의 편모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에서 편모 자신의 긍정적 태도, 변화에 대한 적응력, 높은 통제감, 근대적 성역할 태도등의 심리적 자원이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이혼한 여자는 낮은 자존감, 경제적 궁핍, 직업기술의 부족, 근심과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채 이혼후의 생활을 시작하나 대부분이 이혼후의 생활을 더 낫다고 여기고 기대한 것보다 더 만족한다(Weitzman, 1985). Weitzman의 연구에서 이혼한 남녀는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유능감과 자존감, 더 나은 부모역할 등 이혼의 경험으로부터 성장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자보다 여자 쪽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 큰데 비해 불안을 극복하는 만큼 더 큰 자부심을 느끼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화용·조병은(1996)의 연구에서 편모는 자녀양육에 더 관심을 갖고, 정신적으로 강인해졌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했고, 자녀가 독립심을 갖도록 했고, 이별 당시보다 미래를 더욱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혀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혼한 부인들이 이혼의 긍정적 측면을 인식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히 큰 문제로 꼽고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자원관리행동, 내외통제성, 그리고 소비만족도와와의 관계를 가족자원관리 모델을 적용하여 인과관계를 연구한 Ness와 Williams(1991)는 내적통제성향의 응답자가 소비만족도가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Danes(1991)의 연구에서는 가족 수와 직업, 수입이 내외통제성을 통하여 생활수준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Sumarwan과 Hira(1993)의 연구에서도 외적통제자보다 내적통제자가 소득적정도를 더 높게 인식했으며 재정상황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etherington, Cox, Cox(1977)의 장기종단적 연구에서 이혼한 어머니가 가장의 역할을 할 경우 이혼 후 첫째는 자녀에 대한 책임의 증가와 사회적 생활의 축소로 모자관계가 악화되거나 붕괴될 수도 있는 어려운 시기로 나타났다. 편모가족의 자녀는 사

회적·인지적으로 광범위한 문제를 갖는다. 편모는 생활고와 독신생활에 대한 불만으로 자녀에게 신경질적으로 대하게 되고 경제문제로 인해 자녀는 긴장과 열등감을 갖게된다(신현일, 1993). Zelkowitz(1982)는 심한 경제적 압력을 받을 때 편모가 제한적, 거부적 훈육을 사용하는 경향이 더 높아진다고 지적하였다. Giovanni(1970)도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게되면 부모역할에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극소화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편모의 취업은 과중한 역할부담으로 부모역할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직업이 없는 빈곤층 편모들은 만성적 빈곤과 경제적 불안정으로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이는 다시 부모역할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김영희·한경혜, 1996).

반면 편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다른 연구에서는(신화용·조병은, 1996; 정현숙·서동인, 1996) 편모 가족에 있어 편모와 자녀가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가까워지며 가족내의 위계질서가 약해지고(Weiss, 1979) 편모와 자녀가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생각이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서로를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는 건강한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사회적 지원은 편모가족의 적응에 중요한 지원체계로 작용한다(신화용·조병은, 1996; 정현숙·서동인, 1996; 안명자, 1994). 대부분의 편모가족은 사회적 참여기회의 부족과 대인관계의 결여로 상호교류의 기술이 부족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문제를 갖기 쉽다. 편모의 사회관계망에 관한 연구에서 편모들은 물질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하여 친족, 친구들과의 사회관계망을 비교적 잘 형성하고 있으나 부부가족에 비해 접촉이 적다(McLanahan, 1983; Milardo, 1987).

대부분의 편모가족은 사회적 참여기회의 부족과 대인관계의 결여로 상호교류의 기술이 부족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문제를 갖기 쉽다. 특히 일하는 편모는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이 생활과 자녀에 대한 의무에 감춰있는 느낌이라고 보고하고있다(Weitzman, 1985). 신복기와 박병현(1993)의 영세모자가정에 대한 연구에서 대체적으로 가정의 여러 문제들이나 자녀들의 문제를 의논하거나 상담할 상

대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정서적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편모가족의 대처행동 및 관련요인

대처행동은 가족내의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가족 적응이 용이하도록 사회적, 신체적, 물질적 자원을 획득하거나 개발하는 등의 가족원의 인지적, 행동적 반응을 말한다. Folkman과 Lazarus(1980)는 대처행동을 인지적 활동으로 정의하였고 Pearlin과 Schooler(1978)는 스트레스원으로 부터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이 행하는 노력으로 정의하였다. Skinner(1983)에 의하면 대처행동은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가족을 보호하는 가족체계자원(응집력, 적응력, 조직력)을 강화 유지시키기 위한 사건과 이에 따른 고난을 감소하거나 제거시키고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대처행동은 크게 문제해결적 대처방안과 정서적 대처방안으로 구분된다(Folkman & Lazarus, 1980). 문제해결적 대처방안은 개인이 문제되는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환경적 조건을 변화시켜 스트레스를 감소하려는 노력이고 정서적 대처방안은 스트레스 원인을 회피하거나 인지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자아와 상황의 긍정적 측면만 선별하여 정서상태를 통제하려는 노력이다. 정서적 대처방안에 대하여 Lazarus(1976)는 일시적인 스트레스 극복에는 효과적이거나 본질적으로 자기기만 및 현실왜곡을 내포하는 반응이므로 차후의 스트레스 극복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문제해결적 대처방안이 불가능하거나 문제해결적 대처방안에 방해되지 않을 때에만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조희선, 1991 재인용)

McCubbin(1982)은 적극적 대처방안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대처행동유형으로 제시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으로 스트레스원과 관련된 어려움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고 가족결속력과 적응력 그리고 대

화기술과 같은 가족자원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가정외부에서 자원을 찾고자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킬려는 적극적 노력을 포함한다. 따라서 적극적 대처방안과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은 유사한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편모가족의 대처행동으로 정서적 대처행동 방안 보다 좀 더 지속적 효과를 연구할 수 있는 문제해결적 대처방안을 대처행동으로 정의하여 측정하였다.

대처행동의 개념과 대처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가족이 직면한 문제와 문제의 잠재적 영향력의 맥락에서 이해하여야한다. 이혼한 부모의 대처전략을 연구한 Berman과 Turk(1981)는 새로운 생활계획을 수립하여 독립심을 기르는 것과 취업을 하거나 자녀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가정을 돌보는 등의 대처행동이 이혼 후 생활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고 또한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운 대인관계를 맺거나 사회지원망을 형성 하는것도 도움이 되는 대처행동이라고 하였다.

편모의 스트레스는 상당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기인하고 경제적 어려움은 연속적으로 전반적인 생활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지원망을 확보하고, 통제력을 기르고, 경제적 자원을 관리하는 등의 적극적 대처행동을 한 편모는 생활 전반에 걸쳐 자신감을 나타내었고 특히 그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능력에 대하여 편모 스스로 새롭게 발견한 강인함과 통제력, 그리고 잠재력에 대하여 특별한 자부심과 만족을 나타내었다(Weitzman, 1985).

모자가족과 부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비교 연구에서(조희선, 1991) 모자가족이 부부가족에 비해 경제적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있으며 경제적 스트레스와 가족결속력이 디스트레스의 주된 영향력을 나타내었고 모자가족과 부부가족 모두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대처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혼한 편모의 스트레스와 관리행동에 대해 연구한 Buehler와 Hogan(1980)에 의하면 편모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관리행동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첫째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둘째 생활수준을 낮추고 적응하며, 셋째 자원의 효

율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고 일상생활을 조직화 하고, 넷째 역할을 재정의하고 가사분담을 조정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다. 더 나아가 Buehler와 Hogan(1980)은 대부분의 편모가족이 이혼후 경제적 자원이나 부모역할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점진적 전략이 관리행동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제안하였다. Buehler와 Hogan은 편모가족으로서 적절한 기능을 하고 있는 가족은 물질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을 가지고있고 가족의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개인의 자율성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가족이라고 결론지었다.

Hogan, Buehler와 Robinson(1983)은 스트레스는 고용자원에 비해 목표와 표준이 상충될 때 야기된다고 보고 자원에 대한 통제와 포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Pearlin과 Schooler(1982)도 경제적 문제에 직면해서 가장 효과적 대처행동은 목표와 가치를 정립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Glasser와 Navarre(1965)는 편모의 역할과중의 대처방안으로 자녀의 역할분담을 꾀았고, Buehler와 Hogan(1980) 또한 자녀수가 많을수록 또한 자녀가 어릴수록 편모의 취업에 의한 경제적 안정성을 감소시켜 자원에 대한 관리행동이 복잡해지나 자녀가 자라면서 집안일도 돕고 어린 동생을 돌보기도 하여 편모의 역할과중을 덜어주어서 가족의 목표달성에 인적자원으로 기여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Brassard(1979)는 자녀들과 건강한 상호작용을 하는 편모들이 가족내부와 외부의 여러 사람들로 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보고하였고 부모역할 갈등에 효과적 대처방안은 자녀에게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편모가 자녀와 가족외부의 사람들과 새롭게 의미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편모의 스트레스나 가족 재조직의 수준에서 도움이 되는 대처방안이다(Hetherington, Cox & Cox, 1976; Spanier & Lachman, 1979).

대처행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이혼 후 편모는 편부보다 친구나 친척과 같은 사회적 자원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eitzman,

1985) Pearlin과 Schooler(1978)는 남자는 통제능력과 같은 정서적 자원을 사용하는 반면 여자는 스트레스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였고 Billings와 Moos(1992)는 남자와 여자 모두 정서적 대처방안을 사용하나 남자는 동의나 정보를 구하는 등의 문제해결적 대처방안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Folkman과 Lazarus(1980), McCrae(1982)에 의하면 연령에 따른 대처행동 양식은 변화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대처행동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시설보호 편모가족의 대처행동과 경제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경제적 자원, 심리적 자원, 사회적 자원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편모가족의 경제적 자원, 심리적 자원, 사회적 자원이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편모가족의 경제적 자원, 심리적 자원, 사회적 자원이 경제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대처행동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경제적 복지감에 차이가 있는가?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대구시에 소재하고 있는 모자복지기관에 거주하고 있는 편모가족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자복지 시설기관에서 18세 미만의 자녀와 거주하고 있는 90가구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응답이 누락된 자료를 제외한 83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징으로 편모의 평균 연령은 39.46세이며 자녀수는 2명이 42.2%, 1명이 39.8%, 3명

이 18.1%로 나타났으며, 편모가 된 원인으로 사별한 편모가 50.6%, 이혼에 의한 경우가 36.1%, 별거와 미혼모가 13.1%로 나타났다. 학력은 중졸과 고졸이 각각 33.7%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가 37.3%, 불교가 32.5% 기독교와 천주교가 각각 16.9%, 6.0%로 나타나 종교를 가진 사람이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 월 소득은 30만원이하와 30-50만원 이하가 각각 34.9%로 나타나 거의가 50만원 이하의 소득을 보이고 있다. 직업에 있어서는 무직이 30.1%, 일일 노동자가 39.8%로 나타나 거의 직업이 없거나 일일노동자 이다. 편모가 된 기간은 1-3년 정도가 5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4-6년(24.1%)으로 나타났다.

3. 측정도구

1) 경제적 복지감

경제적 복지감은 소득적정도와 경제적 만족감을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고 소득적정도와 경제적 만족감 척도는 미국의 NC-128 '농촌가족의 경제적 복지감 결정요인으로서의 가족자원활용' 연구 project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소득적정도는 현재 수입이 생활에 어느 정도 충분한가의 정도를 묻는 단일 문항이며 경제적 만족감은 소득과 사용하고 있는 물질, 긴급상황시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순자산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5단계 Likert Scale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경제적 만족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5$ 으로 나타났다.

2) 대처행동

FCI(Family Coping Inventory)의 하위영역에서 11 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자녀와의 관계 향상, 대인관계 및 사회적 지원 개발, 심리적 긴장의 해소, 자존감 향상, 경제적 계획에 관한 문항(예: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 목표를 세우고 저축한다. 장래를 계획한다)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대처행동이 편모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었

는가를 측정하였다. 조사대상자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부터 아주 많이 도움된다 까지 4단계 Likert Scale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대처행동의 점수가 높은 집단은 자녀와 가족의 안정 및 수용의 행동, 친구나 사회활동의 참여, 스스로 심리적 긴장의 해소와 자존감 향상, 경제적 계획 등의 대처행동이 편모 가족으로 생활해 나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집단이며, 대처행동의 점수가 낮은 집단은 이러한 대처행동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이다. 대처행동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 으로 나타났다.

3) 자원변인

대처행동과 경제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경제적 자원, 심리적 자원, 사회적 자원에 대해 조사하였다. 각각의 하위 변인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적 자원

편모가족의 경제적 자원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정도, 직업, 월 소득을 경제적 자원변인으로 연구자가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② 심리적 자원

심리적 자원을 측정하기 위하여 내외통제성, 자녀관계만족도, 자존감, 직업만족도 변인을 측정하였다.

내외통제성 척도는 자신의 인생을 어느 정도로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로서 조사대상자에게 전혀 통제하지 못한다 에서 완전히 통제한다 까지 7단계 Likert Scale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자녀관계만족도 척도는 IPA(Index of Parental Attitudes)척도 25문항중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8문항과 Barnes와 Olson(1982)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부모와의 긍정적 의사소통 4문항을 선정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거의 그렇지 않다 부터 거의 항상 그렇다 까지 5점 Likert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내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84$ 로 나타났다.

자존감 척도는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거의 항상 그렇다 까지의 5점 Likert

척도를 나타낸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71$ 로 나타났다.

직업만족도 변인은 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아주 불만족이다 에서 매우 만족한다 까지 1-5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③ 사회적 자원

사회적 자원은 미국의 NC-128 Project의 사회적 지원 문항 중 12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 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측정도구에 대한 문항분석과 내적일치도에 의한 신뢰도를 구하였고,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빈도, 백분율, 중다회귀분석과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처리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편모가족의 경제적자원, 심리적자원, 사회적자원, 대처행동과 경제적 복지감의 하위변인인 소득적정도와 경제적만족감의 일반적 경향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1. 편모가족의 경제적자원, 심리적자원, 사회적 자원이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편모가족의 경제적 자원, 심리적 자원, 사회적 자원이 편모의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다중공선성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변인간 상관

이 .6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밝혀져 회귀가정은 만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을 살펴보면 월 소득($\beta=.462$), 교육정도($\beta=.299$), 자존감($\beta=.223$), 내외통제성($\beta=.199$)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량은 44.8%로 나타

났다. 즉 월 소득이 높고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존감이 높고 내적 통제감이 높을수록 대처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 경제적 자원과 심리적 자원은 편모의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자원은 영향력이 없었다. 이 결과는 편모의 높은 교육수준과 월 소득은 중요한 경제적 자원으로서 성취의 의미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자존감이 높고 내적통제능력이 높은 편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표 1> 경제적자원, 심리적자원, 사회적자원, 대처행동, 경제적 복지감하위변인의 일반적 경향

변 인	평균	표준편차	분포	
경 제 적 자 원	교육정도	3.34	1.02	1~ 5
	직업	2.11	.96	1~ 4
	월소득	2.05	1.01	1~ 5
심 리 적 자 원	내외통제성	4.40	1.58	1~ 7
	자녀관계만족도	47.12	6.77	32~60
	자존감	15.07	3.24	8~20
사 회 적 자 원	직업만족	2.49	.74	1~ 4
	사회적지원	29.75	8.25	16~50
대처행동	28.51	7.03	18~44	
경 제 적 복 지 감	소득적정도	2.29	1.04	1~ 5
	경제적만족감	9.37	2.41	4~14

<표 3>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변 인	대처행동 β
월소득	.462***
교육정도	.299*
자존감	.223*
내외통제성	.199*
회귀상수	17.650
R ²	.448
F값	15.840***
D-W계수	1.842

*p < .05 ***p < .001

<표 2>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n=83)

	1.	2.	3.	4.	5.	6.	7.	8.	9.	10.	11.
1.	1.00										
2.	.386**	1.00									
3.	.150	.571**	1.00								
4.	.128	.091	.003	1.00							
5.	-.079	.007	.322**	.168	1.00						
6.	-.159	.013	.307**	.300**	.592**	1.00					
7.	.117	.404**	.588**	-.024	.115	.316**	1.00				
8.	-.197	.046	-.083	-.069	-.177	.006	-.024	1.00			
9.	-.240	.278	.487**	.230*	.378**	.473**	.384**	.061	1.00		
10.	-.116	.126	.438**	-.063	.154	.282**	.398**	.337**	.239*	1.00	
11.	-.137	.166	.327**	-.001	.207	.324**	.532**	.302**	.293**	.548**	1.00

*p < .05 **p < .01

경제적자원	1. 교육정도	2. 직업	3. 월소득
심리적자원	4. 내외통제성	5. 자녀관계만족도	6. 자존감
사회적자원	8. 사회적지원		7. 직업만족
대처행동	9. 대처행동		
경제적복지감	10. 소득적정도	11. 경제적만족감	

언기위해 자원활용에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Doherty(1981)에 의하면 자존감이 높은 내적 통제자는 보다 성취지향적이고 정보를 잘 활용하며 사회의 영향에 덜 불평하며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편모가족의 경제적자원, 심리적자원, 사회적 자원이 경제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편모가족의 경제적 자원, 심리적 자원, 사회적 자원이 편모의 경제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중다회귀분석의 결과 소득적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월소득($\beta=.487$), 사회적지원($\beta=.395$), 직업($\beta=-.261$), 직업만족도($\beta=.227$)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소득적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변인에 있어서는 직업이 낮을수록 소득적정도를 높게 인식했다.

이 결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모가족에게 소득은 주관적 평가인 소득적정도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시설보호기관의 편모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회적 지원은 최소한의 안정된 소득을 의미하므로 소득적정도를 높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직업은 편모의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

고 밝히고 있으나(Belle, 1982; Guttentag, Salasin, & Belle, 1980) 이 연구에서 하위직의 편모가 소득적정도를 높게 인식한 것은 대부분의 편모가 하위직에 종사하고 있어 소득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고 또한 시설보호 대상자로서의 경제적 혜택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직업만족도($\beta=.516$), 사회적 지원($\beta=.352$), 자녀관계 만족도($\beta=.210$)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사회적 지원이 많고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이 높을 수록 경제적으로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편모가 직업에 만족할수록 유용감과 자신감을 가져 경제적 자립능력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Burden(1986)의 연구에서도 직업만족도가 직업과 가족의 요구사이에서 역할갈등이 많은 편부모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보호를 받고있는 편모에게 사회적 지원은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뿐만 아니라 도구적 정서적 지원체계로서 인식되어 편모의 경제적 복지감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는 편모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편모와 자녀가 가까울수록 서로의 욕구와 기대를 만족시킬려고 노력하므로 객관적인 생활여건에 비해 경제적 수준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경제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변 인	경제적 복지감	
	소득적정도 β	경제적 만족감 β
직업	-.261*	
월 소득	.487***	
자녀관계 만족도		.210**
직업만족도	.227*	.516***
사회적지원	.395***	.352***
회귀상수	-.427	-1.414
R ²	.404	.424
F값	13212***	19382***
D-W 계수	2.204	2.192

*p < .05 **p < .01 ***p < .001

3. 대처행동 정도에 따른 경제적 복지감의 차이

대처행동의 평균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표 5〉 편모의 경제적 복지감인 소득적정도와 경제적 만족감에 대한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Wilks Lambda=3.789(p<.05)로

〈표 5〉 대처행동의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 인	구 분	N	평균(표준편차)
대처행동	높은집단	37	35.16(4.48)
	낮은집단	46	23.17(2.93)

〈표 6〉 편모의 대처행동에 따른 경제적 복지감에 대한 단변량 분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평균(표준편차)	F	Sig. of F	
대처행동	소득적정도	높은집단	2.54(1.22)	4.028	.048
		낮은집단	2.09(.08)		
	경제적만족감	높은집단	10.13(2.51)	7.151	.009
		낮은집단	8.76(2.16)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각 종속변수에 대한 단변량을 설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6).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모의 대처행동정도는 소득적정도와 경제적 만족감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대처행동이 높은집단이 소득적정도와 경제적 만족감이 높게 나타나 대처행동 정도에 따라 경제적 복지감에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처행동을 적극적으로 잘 하는 편모가 경제적 복지감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erman과 Turk(1981)에 의하면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하는 편부모들이 자원 활용의 수준을 높여서 생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는다고 하였다.

V. 결론

본 연구는 시설보호 편모가족의 대처행동과 경제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두 변인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문제 분석을 통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편모가족의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월 소득, 교육정도, 자존감, 내외통제성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과 교육정도가 높고, 자존감이 강하고 내적 통제능력이 높은 편모가 대처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편모가족의 경제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소득적정도는 직업, 월소득, 직업만족도, 사회적 지원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경제적 만족감은 직업만족도, 사회적

지원,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편모가족의 대처행동에 따른 경제적 복지감의 차이는 대처행동의 점수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소득적정도와 경제적 만족감 모두 높게 인식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편모가족의 대처행동과 경제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소득, 직업과 같은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으며, 직업만족도와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와 같은 심리적자원은 경제적 만족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편모가족의 경제적 복지감은 심리적 자원과 경제적자원 및 사회적 자원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편모가족이 당면한 경제적 문제는 주관적 평가인 소득적정도와 경제적 만족감에 객관적 지표인 소득과 직업과 같은 경제적 자원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시설보호서비스와 같은 사회적자원 및 심리적자원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편모가정이 갖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문제이므로 편모가족의 경제적 복지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문제 및 취업알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로 하위직에 편중되어 있는 편모에게 직업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안정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한다. 건강이 좋지 못한 편모가족의 경우 무상의 건강진단을 포함하는 의료보호혜택이 필요하고 복지수혜 대상을 늘릴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편모가족을 위한 국민 기본연금제도와 아동수당이나 자녀양육비를 포함한 실질적인 소득 지원과 같은 경제적 방안의 검토 및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편모와 자녀의 결속력을 강화시켜 편모가족의 경제적 복지감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편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상담을 강화하고 자녀의 생활지도와 정서적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기구의 활성화가 요구되며 또한 편모가족의 대처행동 정도가 경제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대처행동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근거로 하여 추후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시설기관에 있는 편모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조사대상자가 적어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조사대상자를 광범위하게 선정하여야 하겠다. 둘째, 일반 편모가족을 대상으로 대처행동과 경제적 복지감에 대한 비교연구를 하여 편모가족의 특성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적 복지 측면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심층면접법과 같은 질적 연구를 병행하는 다각적인 연구방법이 편모가족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해답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김영희 · 한경혜(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권 4호, 263-276.
- 2) 신복기 · 박병현(1992). 영세모자가정의 경제적, 교육적, 의료적 및 정서적 문제와 그 대책 -부산시 금정구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사회과학 논총 11권 1호, 161-187.
- 3) 신현일(1993). 모자세대문제의 생태체계론적 접근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신화용 · 조병은(1996). 편부모 자녀가 인지한 가족환경과 사회 · 심리적 적응. '96 가정복지세미나, 한국가족관계학회.
- 5) 안명자(1994). 친족자원과 사별한 편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이승신, 김기옥, 김경자, 심영, 정순희(1996). 가계경제학. 학지사.
- 7) 정현숙 · 서동인(1996). 편부모 가정의 자녀가 인지한 가족환경과 사회 · 심리적 적응. '96 가정복지세미나, 한국가족관계학회.
- 8) 조희선(1991). 모자가족과 부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비교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9) 조희선(1996). 편부모 가정복지의 실제와 향상방안. 늘어나는 편부모 가정. 96 가정복지 세미나, 한국가족관계학회.
- 10) 한경혜 외(1994). 이혼과 가족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서울: 하우
- 11) Ackerman, N. & Paolucci, B. (1983). Objective and subjective income adequacy : Their relationship to perceived life quality measur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 25-48
- 12) Amato, P. R., & Patridge, S.(1987). Widows and divorcees with dependent children: Material, personal, family and social well-being. *Family Relations*, 36(3), 316-320.
- 13) Andrews, F. M., & Withey, S, B(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New York: Plenum press.
- 14) Barnes, H. & Olson, D.(1982). Adolescent-parent communication. In D. Olson(Ed.),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15) Berman W.H. & Turk D. C.(1981). Adaptation to divorce: Problems and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179-189
- 16) Bould, S.(1977). Female-Headed families: Personal fate control and the provider ro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339-349.
- 17) Brand, R., Brown, C., & Fox, E.(1974). Women and children last: Social situation of divorced mothers and thei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 498-514.
- 18) Buehler, C. A. & Hogan, M. J.(1980). *Managerial*

- behavior and stress in families headed by divorced woman: a proposed framework, *Family Relations*, 29, 525-532.
- 19) Compas, B. E., & Williams, R. A.(1990). Stress, coping and adjustment in mothers and young adolescents in single and two-parent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 525-545.
 - 20) Danes, S. M.(1991). Locus of control, gap between standard and level of living and satisfaction: A path model.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9, 282-291.
 - 21) Dixon, C. S., & Rettig, K. D.(1994). An examination of income adequacy for single women: Two year after divorce.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22(1/2), 55-71.
 - 22) Duffy, M.(1989). Mental well-being of women in one-parent families. *Journal of Divorce* 13, 45-57.
 - 23) Folkman S. & Lazarus R.S.(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 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of Social Behavior*, 21.
 - 24) Garfinkel, I. & McClanahan, S.(1986).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A new American dilemma. Washington, D. C: The Urban, Institute Press.
 - 25) Gongla, P., & Thomson, E. Jr(1989). Single parents families. In M. Sussman & s. Steinmetz,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Y: Plenum.
 - 26) Halem, L. C.(1982). Separated and divorced women.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 27) Hetherington, E. M, Cox, M & Cox, R.(1978). The aftermath of divorce. In J, H, Stevens Jr, & M, Mattenes(eds.). *Mother-child, father-child relations*, Washington D. 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28) Katz, R.(1991). Marital status and well-being: A comparison of widowed, divorced, and married mothers in Israel. *Journal of Divorce*, 14, 203-218.
 - 29) Keith, P. M(1985). Financial well-being of older divorced/separated men and women: Findings from a panel study. *Journal of Divorce*, 9(1), 61-72.
 - 30) Mauldin, T. A.(1991). Economic consequences of divorce or separation among women in poverty. *Journal of Divorce*, 14, 163-177.
 - 31) McLanahan, S, S.(1983). Family structure and Stress: A longitudinal comparison of two-parent and female-headed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347-357.
 - 32) McLanahan, S, & Booth, K(1989). Mother-only families: Problems, prospects and politics. *Journal of Marriage*, 557-580.
 - 33) Milardo, R. M.(1987). Changes in social networks of women and men following divorce: A review *Journal of Family Issues*, 8, 78-96.
 - 34) Pearlin L. I. & Schooler, C.(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1
 - 35) Quinn, P., & Allen, K. R.(1989). Facing challenges and making compromises: How single mothers endure. *Family Relations*, 38, 390-395.
 - 36) Richards, L. N.(1989). The precarious survival and hard-won satisfactions of white single-parent families. *Family Relations*, 38, 396-403.
 - 37) Richards, L., & Schmiede, C.(1993). Problems and strengths of single-parent families: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policy. *Family Relations*, 42, 277-285.
 - 38) Ross, L, & Sawhill, V.(1975). *Time of transition: The growth of families headed by women*. Washington, D, C: Urban Institute.
 - 39) Strumpel, B.(1973). Economic life-styles, values and subjective welfare an empirical approach. In E, B, Sheldon(Ed.). *Family economic behavior: Problems and Prospects*, Philadelphia: Lippincott, 69-125.
 - 40) Sumarwan, U., & Hira, T. K.(1993). The Effects of perceived locus of control and perceived income

- adequacy on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of rural household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4), 343-364.
- 41) Van Raaij, W. F.(1981). *Economic Psychology*.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 1-24.
- 42) Weiss, R.(1979). Growing up a little faster: The experience of growing up in a single-parent household. *Journal of Social Issues* 35, 97-111.
- 43) Weitzman, L. J.(1985). *The Divorce Revolution*. The Free Press, 1985.
- 44) Winter, M. Bivens, G. E. & Morris, E. W.(1984). The assesment of subjective change in family financial well-being. *Family Strengths* 5, 399-417.
- 45) Yuen, J. C.(1976). Determinants of the wife's perception of economic well-being among disadvantaged families. Unpublished Do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 46) Zelkowitz, P.(1982). Parenting philosophies and practices. In D. Belle(Ed.). *Lives in stress: Women and Depression*, 154-162. Beverly Hills, CA: Sage.